



# MERITZ

## 유통/화장품 Weekly

### 정부 정책과 사회구조적인 변화 고민

1. 금주의 이슈
2. 전주 동향
3. 금주 전망
4.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5. 예정 이벤트 (실적발표/IR 등)
6. 주요 뉴스
7. 주요종목 Valuation
8. 주요 해외 업체 Valuation
9. 주요 종목 기간별 수익률
10. 해외 주요 업체 기간별 수익률
11. 주간/월간 수익률
12. 주가 추이
13. 업종별 지수 추이
14. 소비 주요지표
15. 중국 소매판매
16. 유통업체 매출동향
17. 중국 인바운드 동향 점검
18. 면세점 동향
19. 화장품 수출 및 현황

### 1. 금주의 이슈

#### 유통업종 관련 신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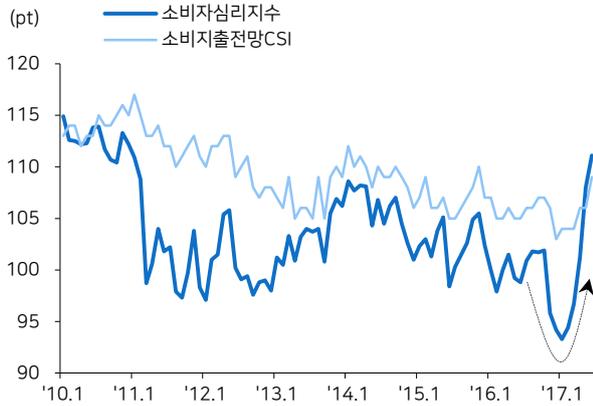
신정부 정책, 기존 유통업체보다는 새로운 유통 매커니즘의 확대 가능성에 무게

신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확정되면서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감과 유통업체들의 인건비 등 비용 부담 확대에 따른 정책 리스크가 함께 부각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소매판매액 부진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기존 유통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정책 기대감보다 리스크 부담이 높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공유경제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의 등장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소매판매액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정부의 적극적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시행으로 기존 유통 매커니즘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래 구조를 갖춘 신업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정과제	주요내용	기대효과
1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 상권을 보호</li> <li>-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제한</li> </ul>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2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및 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li> <li>- 18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li> <li>- 과밀업종 소상공인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지원 및 비생계업종 재창업 지원</li> <li>-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수익성 및 생존율 제고로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li> <li>- 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5만명 양성</li> </ul>
3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투자촉진법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 조성 확대 등을 통해 22년 신규 벤처펀드 5조원 돌파</li> <li>- 22년까지 기술창업자 5.6만명 육성 및 기술인력 혁신창업 촉진</li> <li>- 17년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창업 7년 이내)</li> <li>- 사업 실패자의 소액채납세금 한시적 면제</li> </ul>	양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 육성
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li> <li>-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li> </ul>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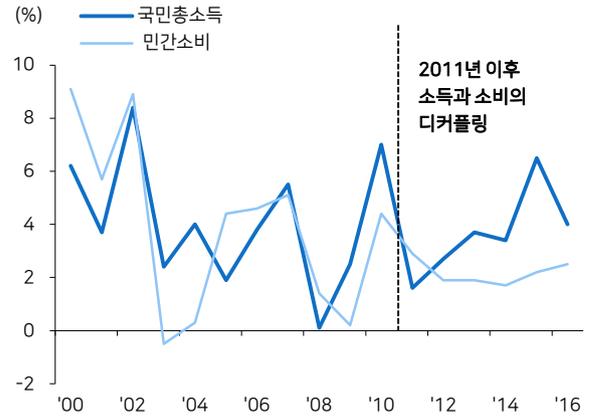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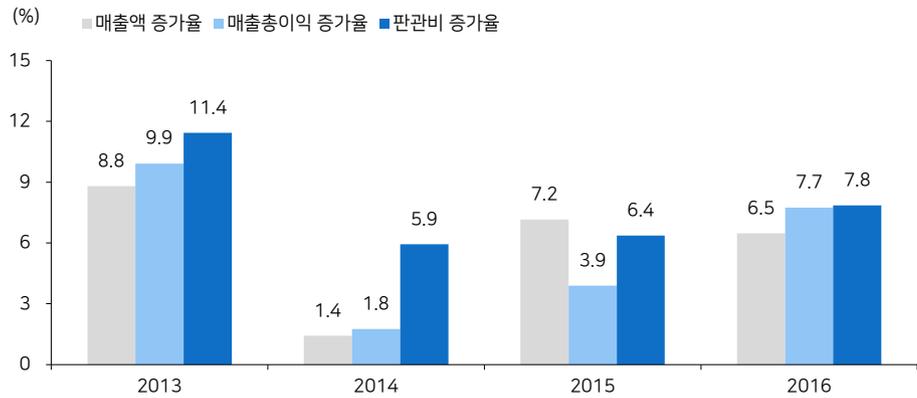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민총소득 증가율 vs. 민간소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요 유통업체 상장사 합 매출액 증가율 vs. 매출총이익 증가율 vs. 판관비 증가율 추이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확정, 유통업체들에게 판관비 상승 부담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 공약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 전년대비 16.4% 크게 증가할 것으로 확정되면서 유통업체들의 인건비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비용 부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비 부진으로 매출액 성장률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에게 판관비 상승 부담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오프라인 매장의 판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온라인은 아직까지 가격할인에 따른 매출총이익률이 오프라인 대비 크게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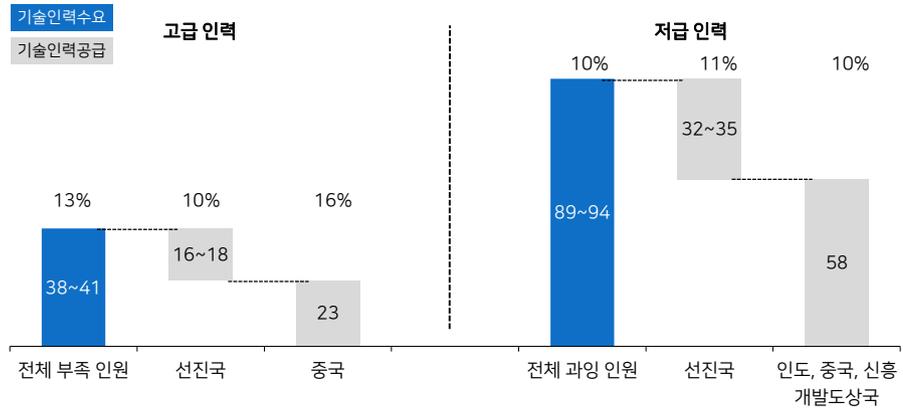
표2 과거 유통업체 인건비 현황							
(십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과거 인건비 관련 이슈	최저임금 인상 영향
<b>롯데쇼핑</b>	<b>1,372.5</b>	<b>1,684.4</b>	<b>1,799.6</b>	<b>1,896.7</b>	<b>2,009.4</b>	2013년 통상임금 관련 인건비 증가	- 백화점 크게 증가하진 않음 - 마트 및 슈퍼 등 영향 불가피
증가율 (% YoY)	12.9	22.7	6.8	5.4	5.9		
인건비 비중 (%)	5.5	6.0	6.4	6.5	6.8		
<b>현대백화점</b>	<b>179.8</b>	<b>187.3</b>	<b>201.7</b>	<b>212.7</b>	<b>227.2</b>		백화점 크게 증가하진 않음
증가율 (% YoY)	13.4	4.2	7.7	5.4	6.8		
인건비 비중 (%)	11.8	12.2	13.0	12.8	12.4		
<b>신세계</b>	<b>238.4</b>	<b>252.7</b>	<b>279.6</b>	<b>295.9</b>	<b>322.8</b>		백화점 크게 증가하진 않음
증가율 (% YoY)	11.5	6.0	10.6	5.8	9.1		
인건비 비중 (%)	10.4	10.4	11.2	11.5	11.0		
<b>이마트</b>	<b>729.0</b>	<b>940.8</b>	<b>1,099.7</b>	<b>1,157.0</b>	<b>1,236.9</b>	2013년 통상임금 관련 인건비 증가	- 마트 및 슈퍼 영향 불가피 - 전체 3만명 중 60%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
증가율 (% YoY)		29.1	16.9	5.2	6.9		
인건비 비중 (%)	5.7	7.2	8.4	8.5	8.4		
<b>GS리테일</b>	<b>249.6</b>	<b>259.7</b>	<b>268.6</b>	<b>294.1</b>	<b>331.7</b>	2016년 인터넷문은행, 왓슨스 등 신사업 관련 인건비 증가	- 편의점은 임금인상 이슈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없음. 파타이머는 전사 인건비에 잡히지 않음 - 슈퍼는 직영점 60~70%에 있는 근로자들이 영향 (총 277개 점포 중 가맹점은 38%정도) 불가피
증가율 (% YoY)	3.4	4.0	3.4	9.5	12.8		
인건비 비중 (%)	5.7	5.5	5.4	4.7	4.5		
<b>BGF리테일</b>	<b>99.3</b>	<b>130.1</b>	<b>154.2</b>	<b>163.5</b>	<b>171.2</b>	2013년 Family Mart 에서 CU 로의 CI 변경으로 관련 작업을 위한 인건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 미미, 편의점 점주 부담 증가에 따른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지켜볼 계획
증가율 (% YoY)	19.5	31.1	18.5	6.0	4.7		
인건비 비중 (%)	3.5	4.2	4.6	3.8	3.4		
<b>롯데하이마트</b>	<b>205.7</b>	<b>202.1</b>	<b>236.0</b>	<b>241.3</b>	<b>244.0</b>	2014년 롯데그룹 인수 이후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추가적인 영업인력 확보로 인건비가 증가	최저임금 관련 인력 미미, 전사적인 인력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음
증가율 (% YoY)	17.1	-1.8	16.8	2.2	1.1		
인건비 비중 (%)	6.4	5.7	6.3	6.2	6.2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인건비 증가에 대한 사회구조적 고민, 전세계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 직면

최저임금 인상 및 인건비 증가에 관한 고민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급 인력의 부족과 저급 인력의 실업률 상승의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통업체들은 IT기술 발전에 따른 무인 매장이나 인공지능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쇼핑 기술들을 접목시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많아질 전망이다.

그림4 전세계적인 고민 고급인력 부족 vs. 저급인력 과잉



주: 교육 수준에 따른 근로자의 수요와 공급 격차, 2020년 추정  
 자료: Mckinsey 글로벌 연구소 분석,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발표

지난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복합쇼핑몰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 '몰'이라고 지칭하는 점포에 한정될 경우 주요 백화점 업체들의 전체 점포 중 10~15%의 점포가 영업제한 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주요 상업시설이 유통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주요 입지를 강점으로 성장해온 기존 유통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결국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 변화에 생존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 나가야겠다.

표3 국내 주요 백화점 점포 현황 및 출점 계획											
롯데쇼핑	점포명	영업면적 (㎡)	영업면적 (평)	임차 /소유여부	비고	현대백화점	점포명	영업면적 (㎡)	영업면적 (평)	임차 /소유여부	비고
1	본 점	43,668	13,288	소유		1	압구정	31,874	9,642	소유/임차	
2	잠실점	42,655	12,980	소유		2	천호	34,942	10,570	소유/임차	
3	부산점	50,477	15,360	소유		3	미아	37,488	11,340	소유/임차	
4	관악점	18,074	5,500	소유		4	중동	59,286	17,934	소유/임차	
5	청량리점 (청량리역사)	45,991	13,995	소유/임차		5	부산	27,550	8,334	소유/임차	
6	광주점	26,435	8,044	소유		6	대구	56,648	17,136	소유/임차	
7	분당점	22,215	6,760	임차		7	울산	30,446	9,210	소유	
8	부평점	15,380	4,680	소유		8	울산 동구	39,041	11,810	소유/임차	
9	일산점	25,501	7,760	임차		9	코엑스 (무역센터)	51,570	15,600	소유/임차	
10	대전점	31,548	9,600	임차		10	목동	61,269	18,534	소유	
11	강남점	27,276	8,300	소유		11	킨텍스	38,916	11,772	소유	
12	포항점	23,004	7,000	임차		12	충청점	43,937	13,291	소유	
13	울산점	39,435	12,000	소유		13	신촌점	40,056	12,117	소유	
14	동래점	27,946	8,504	소유		14	가산하이힐	30,744	9,300	위탁경영	
15	창원점	25,436	7,740	소유		15	김포 아울렛	39,669	12,000	소유	
16	안양점	27,946	8,504	임차		16	판교	92,417	27,956	소유	
17	인천점	30,555	9,298	소유		17	송도	49,589	15,001	소유	
18	상인점	26,573	8,086	임차		18	등대문	39,072	11,819	임차	
19	전주점	34,118	10,382	소유		19	가든파이프	43,890	13,277	임차	2017.04
20	미아점	27,276	8,300	소유		20	대전	42,975	13,000	소유	2018년
21	영플라자 청주점	n/a	n/a	임차		21	남양주	45,289	13,700	소유	2019.09
22	영플라자 대구점	n/a	n/a	임차		22	동탄시티 아울렛	29,700	9,000	임차	2019년
23	센텀시티점	29,576	9,000	소유		23	여의도	89,100	26,953	임차	2020년
24	아울렛광주 월드컵점	n/a	n/a	임차							
25	스타시티점	23,661	7,200	임차							
26	아울렛김해점	28,590	8,700	소유							
27	아울렛광주 수완점	n/a	n/a	임차							
28	광복점	40,749	12,400	소유							
29	아울렛대구 율하점	n/a	n/a	소유							
30	이시아폴리스점	n/a	n/a	임차							
31	파주아울렛	n/a	n/a	소유							
32	김포공항점	26,290	8,000	소유							
33	평촌점	n/a	n/a	임차							
34	중동점	n/a	n/a	소유							
35	안산점	n/a	n/a	소유							
36	구리점	n/a	n/a	소유							
37	아울렛청주점	n/a	n/a	소유							
38	아울렛서울역점	n/a	n/a	임차							
39	노원점	29,524	8,984	소유							
40	아울렛이천점	n/a	n/a	소유							
41	아울렛부여점	n/a	n/a	소유							
42	월드타워점	22,018	6,700	임차							
43	아울렛광명점	n/a	n/a	임차							
44	롯데물동부산점	n/a	n/a	소유							
45	애비뉴엘점	n/a	n/a	소유							
46	영플라자 (명동)	n/a	n/a	소유							
47	영플라자 (청량리)	n/a	n/a	소유							
48	영등포 역사	33,306	10,135	임차							
49	대구 역사	43,303	13,177	임차							
50	인천 항동	16,529	5,000	임차							
51	광주점	n/a	n/a	임차							
52	가산	11,901	3,600	임차							
53	마산 백화점	n/a	n/a	임차							
54	진주 아울렛	29,752	9,000	임차							
55	전남 남악 아울렛	n/a	n/a	임차							
56	의정부 아울렛	13,223	4,000	임차							
57	원흥 아울렛	16,500	5,000		2017년						
58	인천 국제터미널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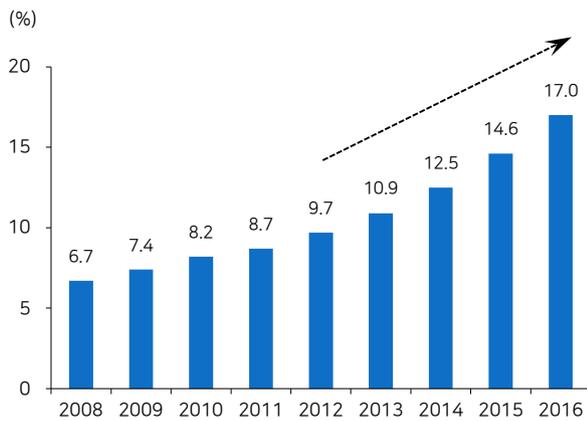
신세계	점포명	영업면적 (㎡)	영업면적 (평)	임차 /소유여부	비고
1	본점	56,500	4,200	소유	
2	영등포점	43,100	13,038	소유/임차	
3	인천점	64,400	19,481	임차	
4	광주점	43,400	13,129	광주신세계	
5	마산점	25,500	7,714	소유/임차	
6	강남점	86,500	26,166	계열사 소유	
7	경기점	60,100	18,180	소유	
8	센텀시티점	131,262	39,707	소유	
9	충청점	47,200	14,278	위탁경영	
10	의정부점	51,600	15,609	임차	
11	김해점	44,629	13,500	소유	
12	하남스퀘어	151,700	45,889	임차	
13	등대구점	103,000	31,158	소유	
14	스타필드 고양점	n/a	n/a	임차	2017.08
15	스타필드 부천점	n/a	n/a	임차	2018년
16	여주 아울렛	53,000	16,033		
17	파주 아울렛	33,000	9,983		
18	부산 아울렛	33,000	9,983		
19	시흥 아울렛	42,000	12,705		2017.04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결론: 정책 이슈 부각에도  
근본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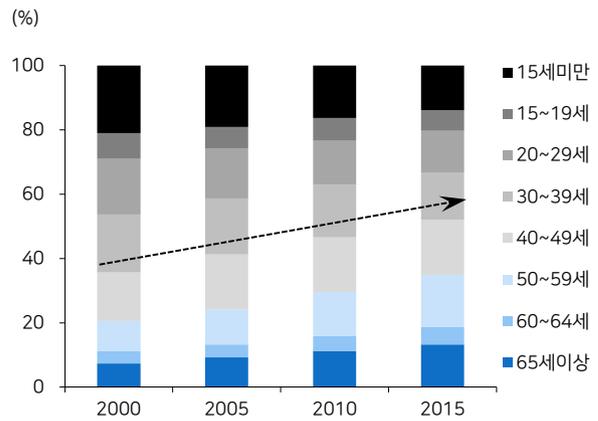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신정부 정책으로 유통업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 발표에도 온라인 비중 확대, 1~2인 가구의 증가 및 인구 고령화, 가치 소비 및 공유경제의 확산 등 구조적인 소비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업태와 기업은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실적 영향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고,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업태와 기업은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실적 타격이 보다 클 수 있겠다.

**그림5 소매유통 내 온라인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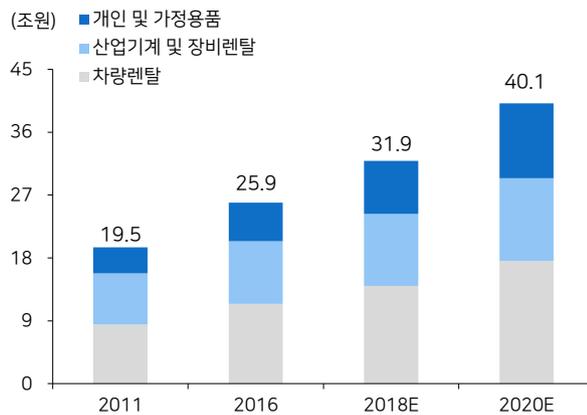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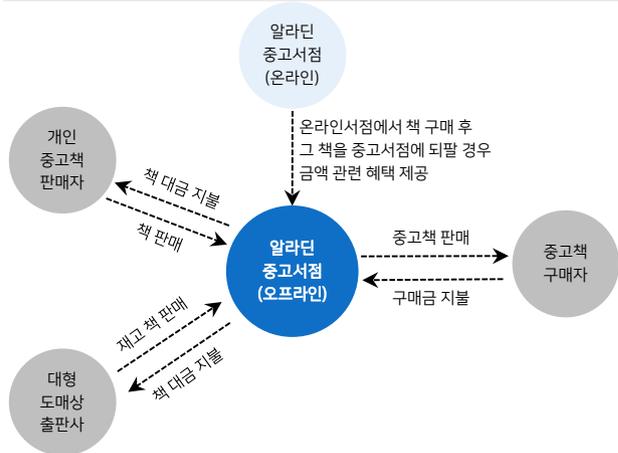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 렌탈 시장 현황**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알라딘 중고서점**



자료: 101가지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2. 전주 동향

### 유통

7월 셋째주 유통업종 주가는 전체 시장 대비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예상보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및 복합쇼핑몰 규제가 확정되면서 주요 유통업체들이 주가가 하락하였음. 한편 호텔신라 주가는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인허가업이라는 면세사업의 특성상 자체 경쟁력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적인 이슈 등에 따른 면세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코웨이 가 니켈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급락하였다가 단순 불량제품으로 알려지면서 2분기 호실적 기대감과 함께 주가 반등하였음

### 화장품 (생활소비재)

7월 셋째주 화장품업종 주가는 시장 평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중국 인바운드 소비 타격에 따른 전반적인 화장품 업체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지만, 6월 화장품 중국 수출액이 16.1%의 두 자릿수를 회복하면서 주가 하락이 제한적이었음. 6월 전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4.5% 증가하였으며, 중국과 홍콩,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16.1%, 16.8%, 86.4% 증가하였음. 중국 화장품 소매판매액 또한 6월 1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 인바운드 부진에도 중국 현지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3. 금주 전망

### 유통: 정책 기대감보다는 리스크 부담이 크다

신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확정되면서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감과 유통업체들의 인건비 등 비용 부담 확대에 따른 정책 리스크가 함께 부각되고 있는 상황. 지난 몇 년간의 소매판매액 부진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기존 유통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정책 기대감보다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판단임. 실제로 공유경제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의 등장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소매판매액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신정부의 적극적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시행으로 기존 유통 매커니즘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래 구조를 갖춘 신입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Top-pick으로 구조적인 온라인 비중 확대와 상품 경쟁력 강화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롯데하이마트를 유지함

### 화장품 (생활소비재):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 장기화 우려

사드 관련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관세 인하 및 로컬 면세점 육성으로 해외 소비보다는 자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중국 인바운드 소비 타격으로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내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한편 중국 이외 미국, 일본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강화되고 있어 중장기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성장성은 유효하다는 판단임. 중국 관련 실적 또한 중국 인바운드 부진을 중국 현지에서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중국 인바운드 부진을 중국 현지에서 보완해줄 수 있는 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겠음. 업종 내 선호도는 안정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춘 대형 화장품 업체를 전방산업의 부진 영향을 후발적으로 받고 있는 화장품 OEM/ODM 업체보다 선호하며, Top-pick으로 LG생활건강을 유지함

## 4.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 유통

#### 관심종목

##### 롯데하이마트 (071840):

생활가전과 에어컨을 포함한 백색가전의 높은 성장으로 매출성장률이 강화되고 고마진 상품 비중 확대로 호실적 전망. 온라인 비중 확대와 카테고리 다변화는 지속적인 기업가치 상승 요인

#### 종목 코멘트 (탐방)

### 화장품 (생활소비재)

#### 관심종목

##### LG생활건강 (051900)

중국 인바운드 소비 타격에도 2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할 전망. 프레스티지 화장품의 경쟁력 강화와 일본 등 지역 다변화, 그리고 생활용품과 음료의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로 선방 예상

##### 네오팜 (092730):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이 아직 미미하고 국내 화장품 신유통 채널 (온라인, H&B스토어, 병의원 등)의 성장 수혜를 온전히 흡수하며 당분간 업종 내 차별화된 호실적이 예상됨

#### 종목 코멘트 (탐방)

##### 한국콜마 (161890)

- 2Q 실적 연결기준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 215억원) 하회할 전망
- 국내 화장품 전년동기 수준 매출 예상 1) 사드 이슈로 주요 고객사인 원브랜드샵 오던 부진 및 2) AHC 시즌 교체 영향, 3) 2017년 히트상품이 선택에 대한 보수적 대응으로 물량 감소
- 화장품 수출, 1Q에 이어 2Q 소폭 역신장 추정, 하반기에도 둔화 흐름 지속될 전망, 신규 고객사 확대에도 기존 고객사 물량 감소 영향
- 제약과 북경콜마의 외형 성장률 높은 수준이지만 1Q 대비 둔화 예상
- 하반기 국내 화장품 회복 여부 관건, 관계사 콜마비엔에이치를 통한 애터미 신제품 8월 런칭 및 AHC 새로운 시즌 효과 기대

## 5. 예정 이벤트 (실적발표/IR 등)

**실적발표** 아모레퍼시픽 7/26, LG생활건강 7/25, 현대백화점 7월 말,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7/28 / 코웨이 8/1 / GS리테일 8월 첫째주 /코스맥스 8월 중 / 신세계, 이마트, BGF리테일, 뉴트리바이오텍, 에이블씨앤씨 8월 둘째주 / 한국콜마, 쿠쿠전자 8/14

## 6. 주요 뉴스

### 유통

**스타필드하남·롯데월드타워도 월 2회 문 닫아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청 주관 아래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 영업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함.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자영업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발표. 업계에선 규제가 시행되면 월매출이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 (한국경제, 7/20)

**면세점 외국인매출 두 달째 회복세...최악은 벗어났지만 정상화까지 시간 필요**: 22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은 6억8857만 달러로, 전월보다 5.0% 증가. 면세점 외국인 매출은 지난 2월 8억8254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급감했다가 지난 5월 반등. 면세점 업계는 여전히 외국인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매출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매일경제, 7/22)

**최저임금도 못 버는 편의점...업주 월평균 소득 155만원 불과**: 통계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를 발표. 2015년 국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가맹점당 영업이익은 1860만원으로 1년 전(2240만원)보다 17% 감소. 최근 편의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 프랜차이즈 편의점 수는 2014년 2만6280개에서 2015년 2만9628개로 급증. 가맹점당 영업이익률 역시 5.2%에서 4.3%로 하락 (한국경제, 7/21)

**"앱으로 다한다" ... 편의점 모바일 플랫폼 경쟁**: 오프라인에서 점포 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편의점 업계가 이제 모바일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고 있음. 카카오톡 등 타사 플랫폼에서 벗어나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시락 예약 주문은 물론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구 위드미)'는 편의점 전용 앱 출시를 검토 중. CU와 GS25는 이미 모바일 플랫폼 경쟁을 진행 중. GS25가 2011년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했고, CU가 이듬해에 'CU멤버스' 앱을 출시한 뒤 지난해 10월에 이를 리뉴얼한 '내맘대로' 앱을 출시 (서울경제, 7/19)

**쇼핑·레저·힐링...진화된 '스타필드 고양'**: 수도권 서북부 최대 쇼핑몰이 될 스타필드 고양의 다음달 24일 오픈할 계획. 신세계가 지난해 문을 연 스타필드 하남을 업그레이드한 복합 체류형 공간. 특히 수도권 서북부 상권이 10대 이하 자녀를 둔 30-40대 인구 비중이 높은 특성에 맞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간을 대폭 늘림.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고양 개장으로 3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매일경제, 7/19)

### 화장품 (생활소비재)

**황금시장 코스메슈티컬...바이오·뷰티업계 정면승부**: 화장품 업계 최대 유망 분야로 꼽히는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 시장 잠재력에 주목한 제약사·생명공학연구소 등 바이오 업계가 잇달아 출시표를 던지는 가운데 기성 뷰티 업계도 '영역 지키기'를 위한 반격에 나서면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바이오 업계가 코스메슈티컬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급격한 시장 성장세 때문.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35조원이었지만 연평균 성장세가 15%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2020년에는 81조원 규모를 기록할 전망 (매일경제, 7/20)

**쿠팡 손 들어준 법원 "로켓배송, 운송사업 아니다"**: 물류협회 "택배만 자가용차 위법은 부당" 반발, 다른 업체들도 자체배송 서비스 시작하나 관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물류협회 회원사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재판부는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유통업체들이 자체 배송 서비스를 내놓을지도 주목됨. 식품배달서비스인 '배민 프레시'는 이미 자체 인력을 고용해 새벽배송 서비스 용 트럭 60대를 운영하고 있음 (한국경제, 7/20)

**택시사업 막힌 우버, 음식 배달로 한국 '노크'**: 글로벌 음식 배달업 '우버이츠' 내달 서울 서비스: 우버코리아는 이달 들어 우버이츠 배달원 교육과 함께 배달 가방을 나눠주는 등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우버이츠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으로 꼽히는 차량 공유 업체 우버의 음식 배달 플랫폼 공유 경제로 유명한 기업답게 배달원도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산책하면서 돈 벌어봤니?'라는 광고 문구를 앞세워 배달원을 모집 중. 현지화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서비스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 (한국경제, 7/20)

**아마존, 백화점도 무릎 꿇렸다...美시어스 가전제품 팔기**: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을 대표하는 백화점 체인인 시어스는 캔모어 브랜드로 판매하는 냉장고와 에어컨, 식기 세척기, 진공청소기 등 각종 전자 제품을 아마존닷컴에서도 유통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힘. 판매 품목에는 일반형은 물론 아마존의 인공지능(AI) 플랫폼인 알렉사사와 연동되는 스마트형 모델도 포함 (연합뉴스, 7/21)

**장마철에 녹녹하니...제습기·건조기 불타**: 19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7월 4~17일) 제습기와 의류건조기 매출은 직전 2주(6월 20일~7월 3일)보다 각각 200%, 55% 급증. 실제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달 평균 습도는 56.6%였지만 7월 10일 기준 81.4%로 증가. 7월 1~10일까지 모든 날이 습도 60%를 넘었고, 최고 습도는 96.5%에 달함 (매일경제, 7/20)

**코웨이, 아마존 손잡고 AI 정수기 만든다**: 코웨이가 글로벌 유통업체인 아마존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정수기 개발에 나섬. 코웨이는 올해 초 아마존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플랫폼 알렉사와 연동하는 인공지능 공기청정기 '에어메가(AIRMEGA400S)'를 출시했고, 새로 개발하는 정수기는 그 후속작인 셈. 코웨이의 인공지능 정수기는 이르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전시회(CES)'에서 선보일 전망 (매일경제, 7/21)

**LG생건 "중 색조시장 잡아라" ... VDL 티몰 플래그십 매장 오픈**: 19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메이크업 브랜드 VDL은 알리바바 티몰에 플래그십 매장을 열고 루미레이어 프라이머, 메탈 쿠션 파운데이션 등 100여개 대표 제품을 선보일 예정. 이번 VDL 플래그십 매장 운영을 통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장 중인 색조 메이크업 열풍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회사측 계획.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중국 색조 메이크업 시장은 오는 2020년 66억달러(약 7조 4,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서울경제, 7/20)

### 7. 주요종목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원)	시가총액 (십억원)	PER(X)		PBR(X)		ROE(%)	
					2017C	2018C	2017C	2018C	2017C	2018C
유통	롯데쇼핑	A023530	283,500	8,928	24.0	19.7	0.5	0.5	2.3	2.8
	현대백화점	A069960	107,000	2,504	8.1	7.9	0.6	0.6	8.1	7.7
	신세계	A004170	225,000	2,215	12.0	10.7	0.7	0.6	5.5	5.9
	CJ오쇼핑	A035760	186,400	1,159	10.5	9.7	1.4	1.3	15.4	14.8
	GS홈쇼핑	A028150	227,300	1,492	13.1	12.1	1.3	1.2	11.3	11.3
	현대홈쇼핑	A057050	132,000	1,584	11.8	10.9	1.0	0.9	8.8	8.7
	엔에스쇼핑	A138250	16,500	556	9.5	8.9	0.9	0.9	13.2	11.8
	이마트	A139480	236,500	6,593	15.3	13.4	0.8	0.8	5.5	5.9
	GS리테일	A007070	47,800	3,681	19.4	16.2	1.8	1.7	9.2	10.5
	BGF리테일	A027410	94,600	4,687	21.4	18.1	4.3	3.6	21.7	21.7
	롯데하이마트	A071840	65,500	1,546	11.1	10.0	0.8	0.7	7.2	7.5
	호텔신라	A008770	59,700	2,343	116.5	28.5	3.4	3.0	2.8	12.3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A090430	293,500	17,158	37.4	29.4	4.7	4.1	13.3	15.2
	아모레G	A002790	131,500	10,843	40.6	31.3	3.6	3.2	9.8	11.1
	LG생활건강	A051900	935,000	14,603	26.3	23.2	5.2	4.3	22.9	21.3
	코스맥스	A192820	105,000	1,055	34.0	20.6	4.5	3.8	14.1	20.1
	한국콜마	A161890	70,400	1,485	24.6	19.7	4.6	3.7	20.7	21.4
	코스메카코리아	A241710	62,300	333	20.7	15.1	2.8	2.3	14.2	16.7
	연우	A115960	28,300	351	21.7	16.1	1.8	1.6	8.4	10.7
	대봉엘에스	A078140	11,200	124	11.8	10.3	1.7	1.5	13.9	13.6
	SK바이오랜드	A052260	17,050	256	20.0	15.2	1.8	1.7	9.4	9.8
	클리오	A237880	32,600	553	24.8	19.0	3.9	3.4	16.5	20.3
	에이블씨엔씨	A078520	23,500	397	17.3	15.7	1.8	1.7	11.1	11.3
	토니모리	A214420	18,700	330	46.8	30.0	2.6	2.4	5.5	8.3
	생활소비재	코웨이	A021240	100,500	7,519	21.4	19.0	6.1	5.6	30.0
쿠쿠전자		A192400	143,500	1,407	17.2	15.0	1.9	1.7	14.0	14.6
뉴트리바이오텍		A222040	21,550	445	29.1	17.4	4.6	3.7	18.1	20.8
콜마비엔에이치		A200130	19,550	578	16.4	16.0	3.6	3.1	24.8	20.8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8. 주요 해외 업체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각국통화)	시가총액 (백만달러)	PER(X)		PBR(X)		ROE(%)	
					2017C	2018C	2017C	2018C	2017C	2018C
유통	월마트	WMT US	76	229,554	17.5	16.5	3.1	3.0	17.1	18.5
	이베이	EBAY US	37	39,184	18.2	16.5	2.4	2.1	19.5	18.4
	세븐 & 아이홀딩스	3382 JP	4,432	35,368	20.6	17.9	1.6	1.5	8.0	8.7
	노드스트롬	JWN US	47	7,878	15.9	15.6	10.0	10.3	59.2	60.7
화장품	로레알	OR FP	181	118,174	26.1	24.6	4.2	3.6	15.2	15.0
	에스티로더	EL US	98	36,029	28.8	25.9	9.8	9.4	33.5	42.8
	시세이도	4911 JP	3,972	14,303	51.7	39.7	3.8	3.6	7.6	9.4
	상해자화	600315 CH	30	3,035	48.6	38.7	3.7	3.4	7.5	8.8
생활소비재	LVMH	MC FP	219	129,839	23.0	20.8	3.8	3.4	17.1	17.3
	나이키	NKE US	60	98,510	24.6	21.4	7.9	6.6	31.6	34.5
	패스트리테일링	9983 JP	33,250	31,751	29.9	28.1	5.1	4.6	19.0	17.6
	조지루시	7965 JP	1,123	734	12.0	12.1	1.3	1.2	9.9	8.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9. 주요 종목 기간별 수익률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롯데쇼핑	(3.7)	(5.8)	15.7	24.6	45.4	28.0	(5.2)	(9.7)	2.6	6.0	23.6	7.1
	현대백화점	0.0	(4.5)	(2.3)	8.1	(16.4)	(1.8)	(1.5)	(8.4)	(15.4)	(10.5)	(38.2)	(22.7)
	신세계	(4.9)	(2.2)	8.2	27.1	17.8	27.8	(6.3)	(6.1)	(5.0)	8.5	(4.0)	6.9
	CJ오쇼핑	(0.9)	(3.5)	(5.4)	17.7	15.9	14.4	(2.3)	(7.4)	(18.5)	(0.9)	(5.8)	(6.5)
	GS홈쇼핑	(0.5)	(1.0)	6.5	32.9	37.1	32.2	(2.0)	(4.9)	(6.7)	14.3	15.3	11.3
	현대홈쇼핑	(2.2)	0.0	7.3	22.2	6.9	18.4	(3.7)	(3.9)	(5.8)	3.6	(14.9)	(2.5)
	엔에스쇼핑	(1.2)	(2.7)	(2.9)	8.9	(9.3)	7.5	(2.7)	(6.6)	(16.1)	(9.7)	(31.1)	(13.4)
	이마트	(3.1)	5.8	0.6	20.4	45.5	29.2	(4.5)	1.9	(12.5)	1.8	23.8	8.3
	GS리테일	(3.4)	(9.0)	(11.8)	(3.7)	(10.2)	0.4	(4.9)	(12.9)	(25.0)	(22.3)	(31.9)	(20.5)
	BGF리테일	(2.5)	(17.4)	(8.2)	3.7	(12.7)	15.7	(3.9)	(21.3)	(21.3)	(14.9)	(34.4)	(5.3)
	롯데하이마트	(4.7)	(1.5)	17.6	55.8	53.0	55.2	(6.1)	(5.4)	4.4	37.2	31.3	34.3
	호텔신라	8.0	6.0	9.1	29.8	(7.9)	24.0	6.5	2.1	(4.0)	11.2	(29.6)	3.1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0.3)	(3.8)	(7.6)	(8.0)	(28.9)	(8.7)	(1.8)	(7.7)	(20.7)	(26.6)	(50.7)
아모레G		5.6	(1.5)	(6.1)	(4.7)	(17.3)	(1.1)	4.2	(5.4)	(19.2)	(23.3)	(39.1)	(22.0)
LG생활건강		1.2	(4.4)	6.1	6.9	(16.0)	9.1	(0.3)	(8.3)	(7.0)	(11.8)	(37.8)	(11.8)
코스맥스		1.0	(7.1)	(29.1)	(18.3)	(29.4)	(12.1)	(0.5)	(11.0)	(42.2)	(36.9)	(51.2)	(33.0)
한국콜마		1.3	(4.7)	(13.8)	4.1	(27.7)	7.0	(0.2)	(8.7)	(27.0)	(14.5)	(49.5)	(13.9)
코스메카코리아		(0.3)	(7.4)	(10.6)	2.6	N/A	11.3	(1.8)	(11.4)	(23.8)	(16.0)	N/A	(9.7)
연우		0.0	(7.8)	(14.0)	(12.7)	(36.1)	(26.6)	(1.5)	(11.7)	(27.1)	(31.3)	(57.8)	(47.5)
대봉엘에스		4.7	(10.8)	(9.7)	(1.3)	(28.7)	(5.5)	3.2	(14.7)	(22.8)	(19.9)	(50.4)	(26.4)
SK바이오랜드		1.2	(5.0)	(8.3)	3.3	(29.3)	(5.0)	(0.3)	(8.9)	(21.5)	(15.3)	(51.0)	(25.9)
클리오		(4.7)	(17.3)	(21.5)	(1.5)	N/A	6.5	(6.2)	(21.2)	(34.6)	(20.1)	N/A	(14.4)
에이블씨엔씨		0.6	(8.2)	(17.0)	21.1	(26.1)	13.5	(0.8)	(12.1)	(30.1)	2.5	(47.8)	(7.4)
토니모리		0.0	(7.9)	(15.0)	(10.3)	(43.8)	(17.8)	(1.5)	(11.8)	(28.2)	(28.9)	(65.6)	(38.7)
생활소비재	코웨이	3.1	(2.9)	(2.9)	14.7	10.7	13.8	1.6	(6.8)	(16.1)	(3.9)	(11.1)	(7.1)
	쿠쿠전자	(3.0)	(5.0)	5.1	9.1	(3.0)	11.2	(4.5)	(8.9)	(8.0)	(9.5)	(24.8)	(9.7)
	뉴트리바이오텍	7.0	11.4	(11.7)	(26.1)	(43.4)	(29.9)	5.5	7.5	(24.8)	(44.7)	(65.2)	(50.8)
	콜마비엔에이치	2.9	(6.5)	(9.9)	19.6	(47.0)	5.4	1.4	(10.4)	(23.1)	1.0	(68.7)	(15.5)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10. 해외 주요 업체 기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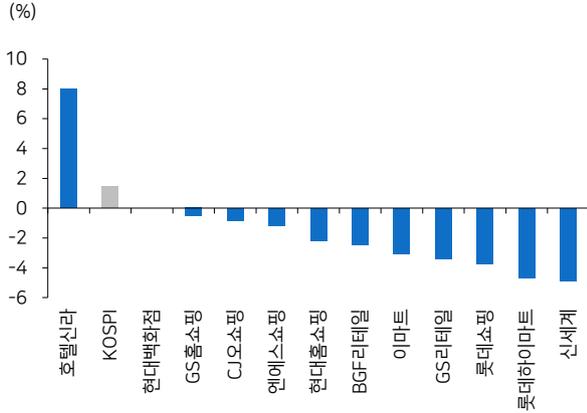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월마트	(0.2)	1.8	1.6	14.3	3.5	10.2	(0.8)	0.3	(2.5)	5.8	(10.1)	(0.3)
	이베이	(1.3)	2.9	13.8	20.9	20.1	23.3	(1.8)	1.5	9.6	12.5	6.4	12.9
	세븐 & 아이홀딩스	(1.9)	(6.9)	(2.3)	(1.4)	(0.4)	(0.5)	(1.9)	(6.7)	(8.8)	(8.4)	(21.3)	(5.6)
	노드스트롬	1.3	(1.2)	(0.4)	6.8	16.1	(1.0)	0.7	(2.6)	(4.5)	(1.6)	2.4	(11.5)
화장품	로레알	(1.8)	(3.8)	0.1	5.7	3.6	4.3	0.5	(1.0)	2.9	(0.3)	(13.2)	(0.9)
	에스티로더	2.8	1.0	15.0	23.0	5.1	28.1	2.2	(0.4)	10.8	14.5	(8.6)	17.6
	시세이도	2.3	(0.8)	34.4	31.5	36.9	34.3	2.3	(0.6)	27.9	24.5	16.0	29.1
	상해자화	(1.6)	(2.6)	1.6	13.9	6.6	12.1	(2.1)	(5.1)	(1.9)	10.9	(0.8)	7.8
생활소비재	LVMH	(0.2)	(5.4)	6.0	15.2	54.1	20.9	2.0	(2.5)	8.8	9.2	37.3	15.6
	나이키	3.4	13.4	7.3	12.6	5.7	17.9	2.8	12.0	3.2	4.2	(8.0)	7.5
	패스트리테일링	(8.2)	(9.8)	(5.3)	(8.5)	1.9	(20.5)	(8.2)	(9.6)	(11.8)	(15.5)	(19.0)	(25.7)
	조지루시	0.2	(10.3)	(22.2)	(28.6)	(32.7)	(28.4)	0.2	(10.1)	(28.7)	(35.5)	(53.6)	(33.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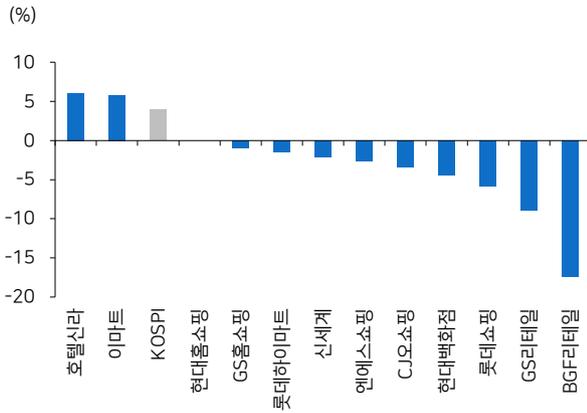
### 11. 주간/월간 수익률

#### 유통

#####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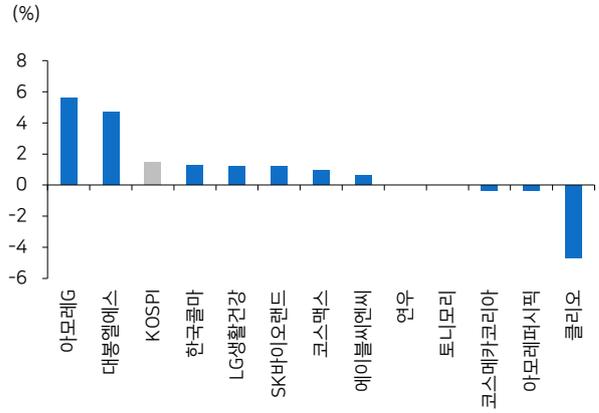
##### 월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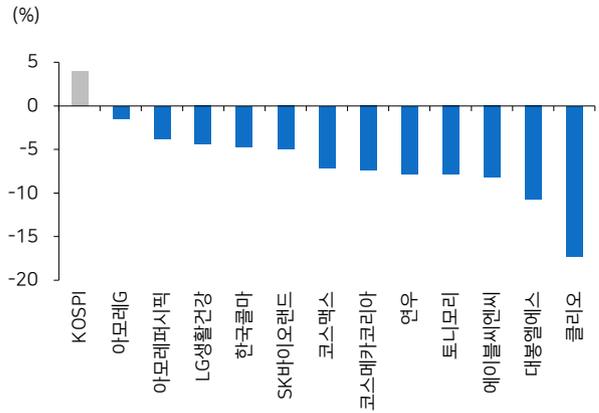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화장품 (생활소비재)

#####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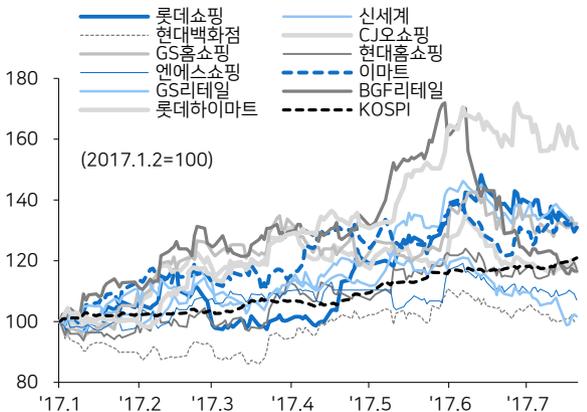
##### 월간 수익률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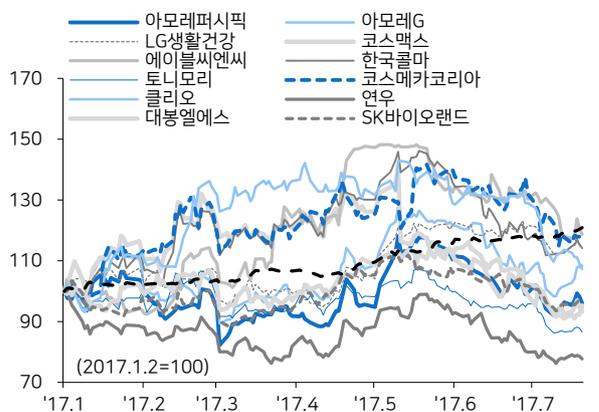
### 12. 주가 추이

####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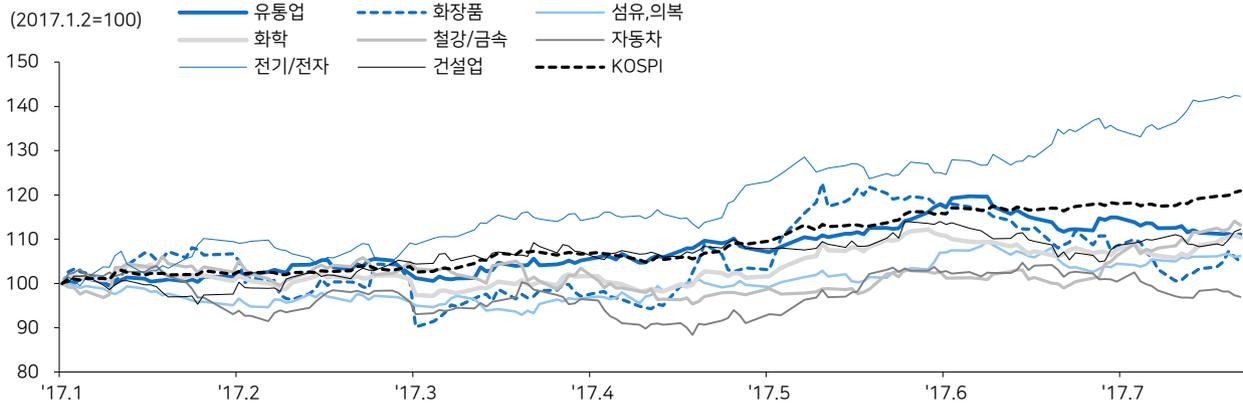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화장품 (생활소비재)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13. 업종별 지수 추이



자료: Quantiverse,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 14. 소비 주요지표

Monthly	'16.5	'16.6	'16.7	'16.8	'16.9	'16.10	'16.11	'16.12	'17.1	'17.2	'17.3	'17.4	'17.5	'17.6
소비지출전망 CSI	105	105	106	106	107	107	106	103	104	104	104	106	106	<b>109</b>
가계수입전망 CSI	98	98	100	100	100	101	98	98	98	97	98	99	102	<b>103</b>
소비심리지수	99.2	98.8	100.9	101.8	101.7	101.9	95.8	94.2	93.3	94.4	96.7	101.2	108.0	<b>111.1</b>
소비자물가지수(% YoY)	0.8	0.7	0.4	0.5	1.3	1.5	1.5	1.3	2.0	1.9	2.2	1.9	2.0	<b>1.9</b>
가계대출 증감률(% YoY)	12.7	12.3	12.0	12.0	11.8	11.4	11.5	10.8	10.4	10.4	10.0	9.8	9.7	<b>9.5</b>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YoY)	14.7	14.0	13.6	13.4	13.1	12.6	12.4	11.7	11.2	11.1	10.6	10.2	10.0	<b>9.8</b>
WTI (\$/B)	49.1	48.3	41.6	44.7	48.2	46.9	49.4	53.7	52.8	54.0	50.6	49.3	48.3	<b>46.0</b>
KOSPI (pt)	1,983.4	1,970.4	2,016.2	2,034.7	2,043.6	2,008.2	1,983.5	2,026.5	2,067.6	2,091.6	2,160.2	2,205.4	2,347.4	<b>2,391.8</b>
원/달러	1,191.9	1,151.8	1,120.2	1,114.8	1,101.1	1,143.8	1,169.0	1,205.8	1,161.3	1,130.3	1,118.5	1,137.7	1,195.7	<b>1,144.1</b>
원/위안	181.0	173.3	168.8	166.9	165.0	168.8	169.7	173.6	168.7	164.3	162.4	165.0	164.2	<b>168.7</b>
기준금리 (%)	1.50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b>1.25</b>
소매판매액 증감률 (% YoY)	4.6	8.8	4.1	5.3	2.1	4.2	4.2	3.6	7.1	2.7	4.1	4.4	<b>3.1</b>	
내구재	13.2	15.0	1.6	6.6	-1.6	1.9	1.7	-1.1	2.4	9.4	2.4	5.8	<b>6.1</b>	
승용차	19.8	20.2	-10.5	-5.3	-9.4	-1.8	2.3	-6.3	3.5	11.4	-0.2	-0.9	<b>-2.4</b>	
가전제품	10.0	20.9	20.1	24.1	13.8	5.2	-1.6	2.5	0.1	4.7	9.0	18.1	<b>29.5</b>	
통신기기 및 컴퓨터	3.4	-0.5	2.3	9.0	-3.4	2.6	0.9	1.5	0.3	2.3	-1.0	8.1	<b>3.0</b>	
가구	1.2	1.2	0.9	8.0	11.0	12.5	10.0	11.1	5.1	16.1	7.8	4.0	<b>1.1</b>	
준내구재	2.7	14.7	8.9	3.3	3.6	3.6	1.9	1.2	0.3	0.3	-0.3	1.6	<b>-3.9</b>	
의복	2.5	16.4	7.5	-0.8	1.6	3.4	1.2	1.2	-1.2	-0.5	-0.6	3.2	<b>-4.2</b>	
신발 및 가방	2.5	23.3	16.9	10.2	9.0	6.4	-2.0	-0.3	4.0	4.3	-1.2	-5.1	<b>-6.2</b>	
오락, 취미, 경비용품	0.1	2.9	2.3	-0.1	0.7	-1.0	2.4	-2.2	-1.3	-4.0	-1.2	1.9	<b>-3.8</b>	
비내구재	1.2	2.8	3.5	5.4	3.2	5.8	6.8	7.6	12.3	0.6	7.8	5.6	<b>4.8</b>	
음식료품	3.4	3.4	4.9	7.8	3.9	8.6	7.6	9.0	17.1	-10.1	7.6	4.9	<b>4.2</b>	
의약품	5.8	6.4	4.3	5.9	7.4	4.6	6.5	4.8	0.5	2.1	1.1	2.8	<b>3.5</b>	
화장품	12.6	22.1	29.6	26.4	17.2	14.2	15.1	17.2	11.9	16.1	4.8	-1.1	<b>2.1</b>	
서적, 문구	11.3	6.5	6.5	7.2	5.9	6.4	6.4	4.1	-1.9	-0.3	-1.4	-1.0	<b>2.0</b>	
차량연료	-10.7	-5.1	-7.5	-4.1	-6.3	-1.1	3.0	4.2	11.3	14.5	13.6	9.7	<b>8.7</b>	

주: WTI, KOSPI, 환율은 월말 증가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Bloomberg,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Quarterly	1Q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4Q16	1Q17
민간소비 증감률(% YoY)	0.8	(0.1)	1.1	1.4	(0.1)	0.8	0.6	0.2	0.4
도시근로자 소득 증감률(% YoY)	1.4	2.0	0.3	(0.5)	0.9	0.9	0.6	0.2	0.7
도시근로자 소비지출 증감률(% YoY)	0.6	(1.9)	(1.6)	(0.5)	(0.6)	0.6	0.7	(2.2)	
가계신용잔액 증감률(% YoY)	7.4	9.2	10.3	10.9	11.4	11.1	11.3	11.6	11.1
가계대출 증감률(% YoY)	7.7	9.6	10.3	11.0	11.5	11.2	11.5	11.6	11.1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YoY)	11.3	8.1	7.8	6.6	6.0	10.4	10.6	11.2	10.5
판매신용 증감률(% YoY)	3.2	3.5	10.5	8.2	10.5	10.8	7.0	11.6	12.0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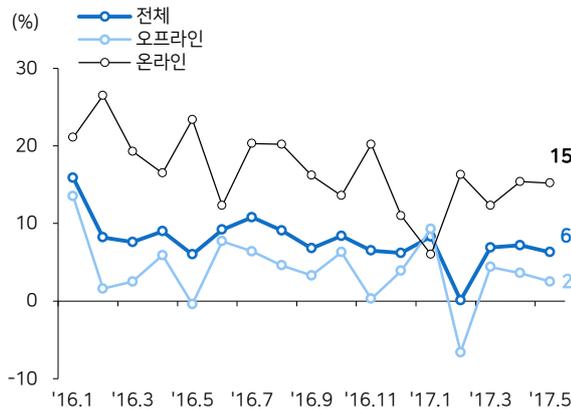
### 15. 중국 소매판매

(% YoY)	2016년												2017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b>전체소매판매</b>	<b>10.2</b>	<b>10.5</b>	<b>10.1</b>	<b>10.0</b>	<b>10.6</b>	<b>10.2</b>	<b>10.6</b>	<b>10.7</b>	<b>10.0</b>	<b>10.8</b>	<b>10.9</b>	<b>9.5</b>	<b>10.9</b>	<b>10.7</b>	<b>10.7</b>	<b>11.0</b>	
일정규모이상	7.6	8.6	6.7	6.5	8.1	7.3	8.5	8.8	7.5	9.5	9.8	6.8	10.0	9.2	9.2	10.2	
음식료	11.2	11.7	12.1	11.1	11.9	10.5	10.5	10.2	8.8	9.1	9.1	9.6	12.5	12.1	13.8	10.6	
섬유의복	8.4	4.4	7.3	5.9	7.5	9.4	6.2	6.7	7.5	5.1	7.1	6.1	6.4	10.0	8.0	7.3	
<b>화장품</b>	<b>11.4</b>	<b>9.2</b>	<b>7.6</b>	<b>5.9</b>	<b>7.9</b>	<b>9.0</b>	<b>5.8</b>	<b>7.7</b>	<b>4.0</b>	<b>8.1</b>	<b>11.0</b>	<b>10.6</b>	<b>8.7</b>	<b>7.7</b>	<b>12.9</b>	<b>17.0</b>	
귀금속	-1.5	-9.3	5.0	-2.0	1.2	-1.1	-6.3	5.0	2.5	2.7	4.8	8.2	7.2	7.5	9.6	6.3	
일용품	10.3	12.2	12.7	12.8	11.7	10.4	10.0	12.5	9.5	10.7	13.9	9.2	7.1	8.0	8.7	11.2	
스포츠, 레저	16.0	16.8	19.7	12.9	19.7	5.2	5.1	7.1	9.4	24.8	13.9	19.5	12.8	8.6	11.4	29.1	
서적	7.5	15.4	4.8	9.3	3.3	7.4	7.7	8.7	6.6	12.8	9.5	11.5	11.1	4.8	0.1	12.3	
가전제품	7.9	6.0	9.1	0.7	12.3	11.5	7.1	8.6	7.6	14.7	9.5	5.6	12.4	10.2	13.6	13.3	
중의약	12.7	19.8	9.9	14.4	10.5	7.3	13.9	12.0	11.6	11.5	9.1	9.9	12.1	12.6	14.0	13.6	
사무용품	9.5	3.8	13.0	8.0	11.3	7.3	13.6	10.4	12.7	15.4	15.3	13.4	17.2	3.8	5.0	16.4	
가구	16.4	15.9	17.1	15.1	13.4	13.6	11.1	8.7	11.0	8.8	9.9	11.8	13.8	13.9	13.5	14.8	
통신	20.1	16.5	12.5	9.4	12.1	11.6	10.1	5.1	3.8	17.8	8.0	10.7	11.6	6.1	1.9	18.5	
석유제품	0.5	0.3	-3.8	-4.5	-0.5	-2.1	2.7	2.9	4.7	5.7	7.1	14	11.3	12.1	9.1	4.2	
건축재	14.9	15.6	17.3	16.8	14.2	15.0	16.3	14.2	12.3	11.0	10.2	12.9	17.8	13.4	11.0	15.2	
자동차	5.4	12.3	5.1	8.6	9.5	9.2	13.1	13.1	8.7	13.1	14.4	-1.0	8.6	6.8	7.0	9.8	
기타	11.5	4.1	5.3	5.6	2.6	1.0	0.6	-0.3	2.6	0.0	-0.7	6.9	6.0	4.7	4.2	7.9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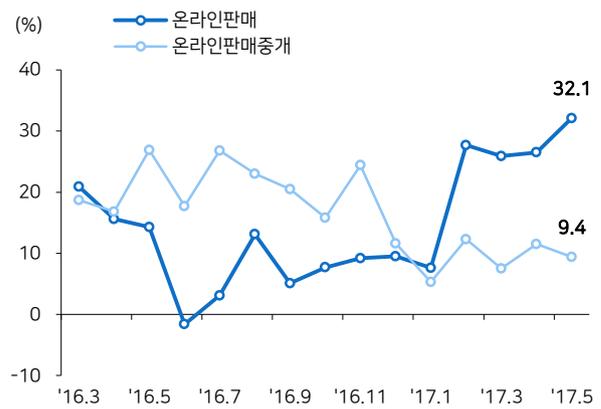
### 16. 유통업체 매출동향

전체 매출동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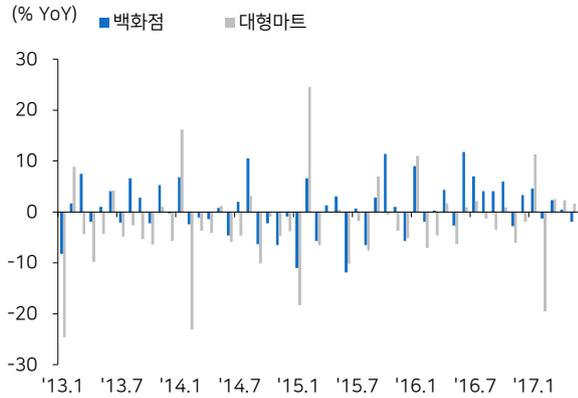
온라인 매출동향



주: 온라인판매증가 -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온라인판매 - 이마트, 신세계, 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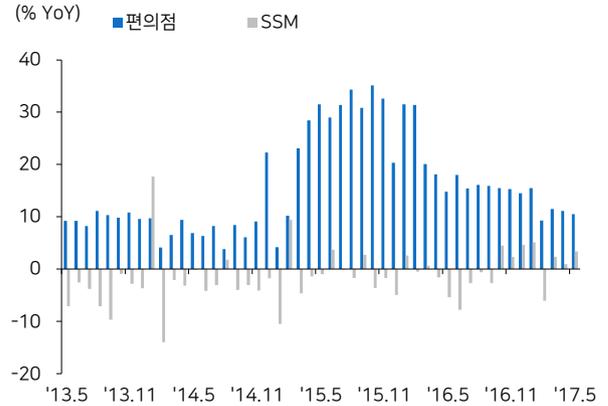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월별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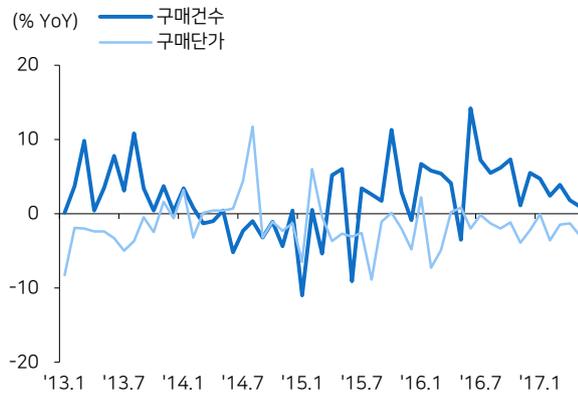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편의점 및 SSM 월별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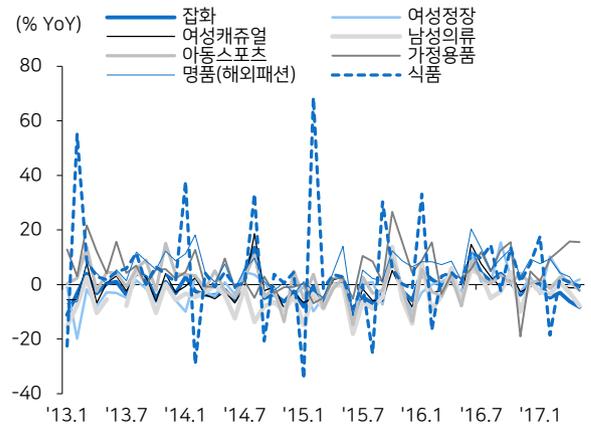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백화점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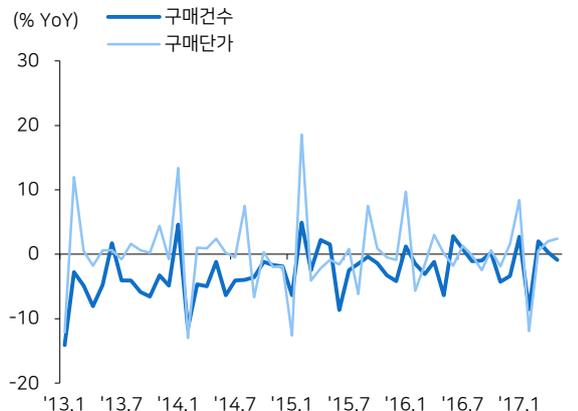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백화점 품목별 매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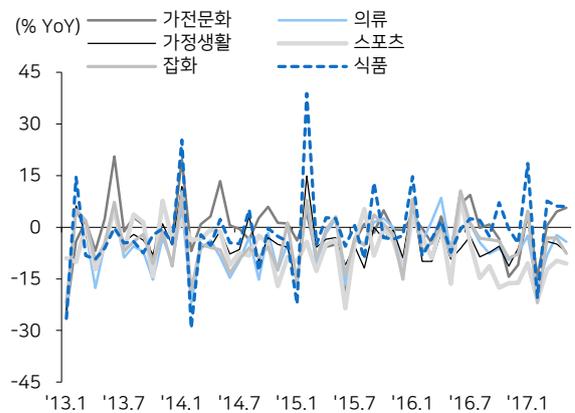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대형마트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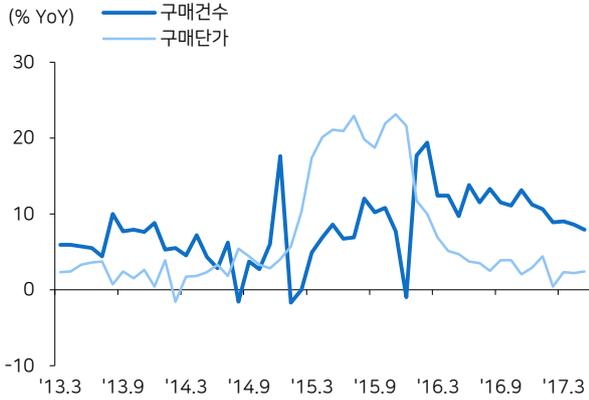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대형마트 품목별 매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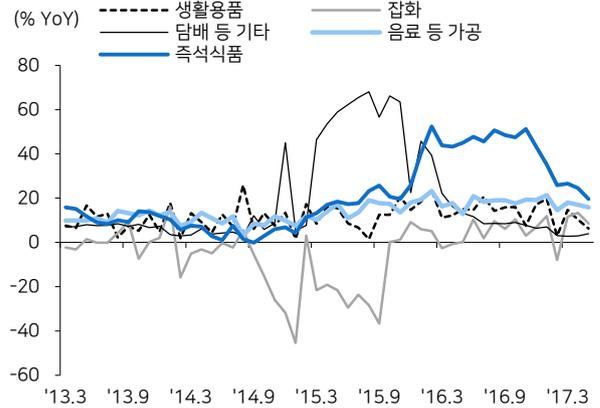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편의점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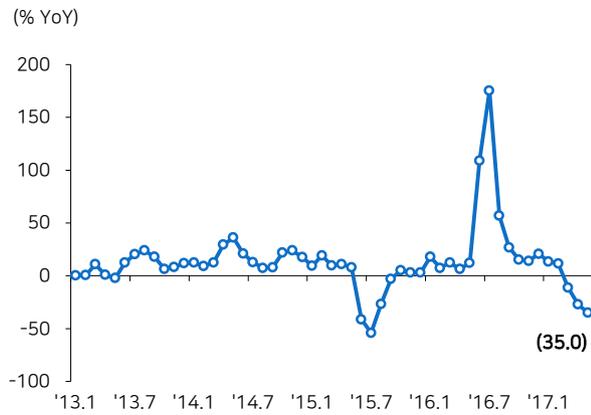
편의점 품목별 매출 성장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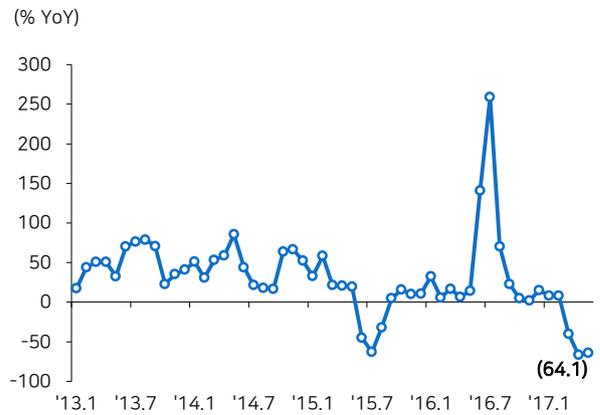
17. 중국 인비온드 동향 점검

한국에 입국하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감률: 5월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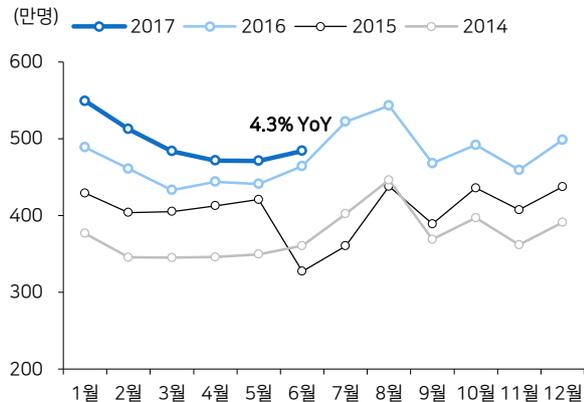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감률 추이: 5월 -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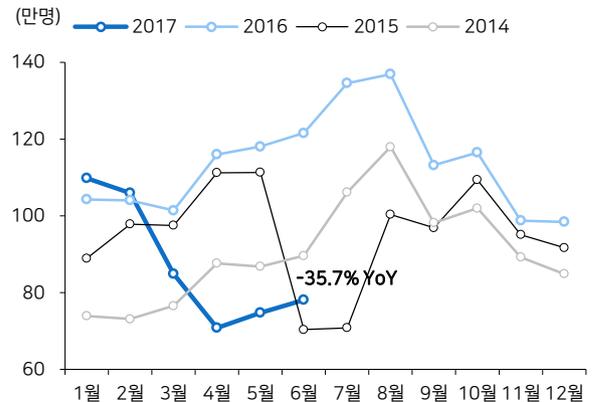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인천공항 국제선 합산 여객 수송 월별 추이: 6월 +4.3% YoY



자료: 인천공항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인천공항 국제선 중국 여객 수송 월별 추이: 6월 -35.7% YoY



자료: 인천공항공사,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18. 면세점 동향

(천명, 천달러, %)	내국인				외국인				합계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인원수	증감률	매출금액	증감률
2015년 09월	1,918		198,197		1,298		428,676		3,217		626,873	
2015년 10월	2,217		237,277		1,527		536,616		3,744		773,893	
2015년 11월	2,197		235,316		1,403		511,651		3,601		746,967	
2015년 12월	2,238		239,745		1,437		525,394		3,675		765,139	
2016년 01월	2,423		236,752		1,525		517,385		3,948		754,137	
2016년 02월	2,217		211,662		1,491		490,268		3,708		701,930	
2016년 03월	2,089		212,725		1,610		609,963		3,699		822,688	
2016년 04월	2,220		241,886		1,831		633,957		4,051		875,843	
2016년 05월	2,237		245,607		1,844		625,903		4,081		871,510	
2016년 06월	2,315		245,118		1,842		624,564		4,156		869,682	
2016년 07월	2,413		267,849		1,917		637,508		4,330		905,357	
2016년 08월	2,558		285,522		1,900		682,417		4,459		967,939	
2016년 09월	2,449	27.7	277,106	39.8	1,711	31.8	666,473	55.5	4,160	29.3	943,579	50.5
2016년 10월	2,420	9.2	267,841	12.9	1,846	20.9	728,971	35.8	4,266	14.0	996,812	28.8
2016년 11월	2,312	5.2	251,214	6.8	1,519	8.3	666,382	30.2	3,832	6.4	917,596	22.8
2016년 12월	2,272	1.5	247,595	3.3	1,595	11.0	733,931	39.7	3,867	5.2	981,526	28.3
2017년 01월	2,509	3.6	260,718	10.1	1,682	10.3	708,392	36.9	4,191	6.2	969,110	28.5
2017년 02월	2,485	12.1	257,709	21.8	1,633	9.5	882,538	80.0	4,118	11.1	1,140,247	62.4
2017년 03월	2,534	21.3	267,001	25.5	1,235	-23.3	664,945	9.0	3,768	1.9	931,945	13.3
2017년 04월	2,705	21.9	299,059	23.6	998	-45.5	590,151	-6.9	3,704	-8.6	889,210	1.5
2017년 05월	2,579	15.3	280,167	14.1	1,024	-44.5	655,899	4.8	3,603	-11.7	936,066	7.4
<b>2017년 06월</b>	<b>2,628</b>	<b>13.6</b>	<b>277,425</b>	<b>13.2</b>	<b>1,064</b>	<b>-42.2</b>	<b>688,568</b>	<b>10.2</b>	<b>3,693</b>	<b>-11.2</b>	<b>965,993</b>	<b>11.1</b>
2009	12,853		1,441,700		8,410		1,592,700		21,263		3,034,400	
2010	15,255	18.7	2,167,500	50.3	8,178	-2.8	1,749,700	9.9	23,433	10.2	3,917,200	29.1
2011	16,427	7.7	2,416,800	11.5	9,872	20.7	2,445,900	39.8	26,299	12.2	4,862,700	24.1
2012	16,834	2.5	2,367,800	-2.0	12,002	21.6	3,240,100	32.5	28,836	9.6	5,607,900	15.3
2013	17,146	1.9	2,342,900	-1.1	12,437	3.6	3,897,600	20.3	29,583	2.6	6,240,500	11.3
2014	18,557	8.2	2,451,800	4.6	15,766	26.8	5,451,400	39.9	34,323	16.0	7,903,200	26.6
2015	24,587	32.5	2,725,700	11.2	16,081	2.0	5,416,900	-0.6	40,668	18.5	8,142,600	3.0
2016	27,925	13.6	2,990,877	9.7	20,632	28.3	7,617,723	40.6	48,556	19.4	10,608,600	30.3

자료: 한국면세점협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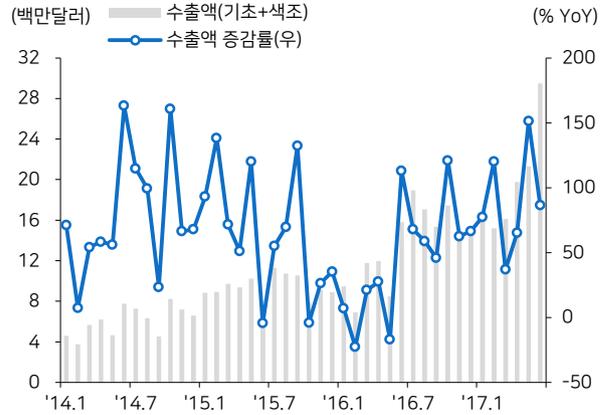
### 19. 화장품 수출 및 현황

화장품 전체 수출액 및 증가율 -6월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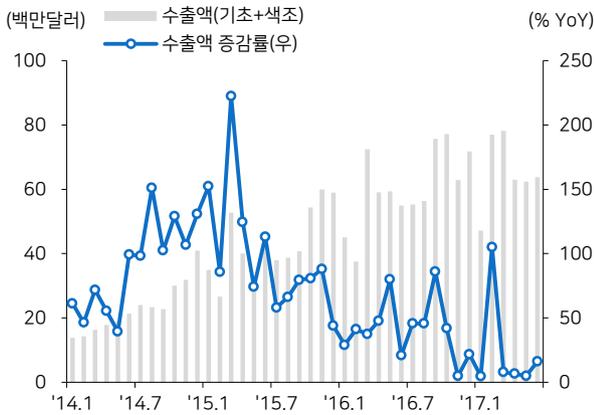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미국향 수출액 및 증가율 -6월 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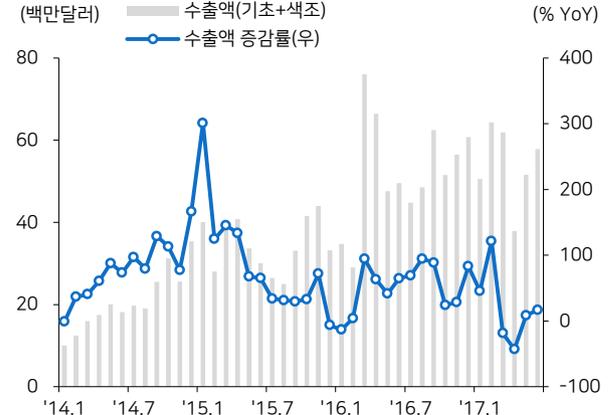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중국향 수출액 및 증가율 -6월 16.1%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홍콩향 수출액 및 증가율 -6월 16.8%



자료: KITA,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7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7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지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증가대비 4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미만
<b>산업</b>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92.8%
중립	7.2%
매도	0.0%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